

2013 봄 이야기 vol.169  
www.holt.or.kr

#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 홀트소식



## 봄 이야기

홀트약원이 달라진 걸 가장 먼저 아는 건 역시 아이들. 환해진 병원이 낯선 듯 머뭇거리다가 새 장난감을 보자 뱅글 달려가 이것저것 만지고 들춰보기 바쁩니다. 낮가림 심한 훈이(가명, 17개월)도 카메라를 볼 때는 울더니만 장난감을 쥐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놀이에 빠지네요. 홀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 이번 나눔도 성공!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69호·기간 **발행일** | 2013년 03월 22일 **발행인** | 말리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이춘근(자원개발실장), 신미숙(후원팀장), 홍미경(홍보팀장), 성경희(아동양육팀장), 최안여(국내입양팀장), 김재현(하남시복지관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3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b>이사회</b> 말리홀트 이사장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이혜경 이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임부용 이사(HCS 수석교수)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b>인천사무소</b> www.icholt.or.kr T.032)424-0145 <b>전북사무소</b> www.jbholt.or.kr T.063)288-0880 <b>충청사무소</b> www.ccholt.or.kr T.042)586-1983
<b>본부</b> T.02)331-7000 <b>전국미혼모지원센터</b> T.1588-7501	<b>부속기관</b>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2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4 입양가정지원센터 T.02)322-8104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b>지방사무소</b>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4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부천사무소 www.bcholt.or.kr T.032)322-2797 울산사무소 www.ulsanholt.or.kr T.052)243-9671	<b>전주영아원</b> T.063)222-1559 <b>대구어린이집</b> T.053)746-7504 <b>마포어린이집</b> T.02)334-4743 <b>중동어린이집</b> T.02)375-6755 <b>홀트어린이집</b> T.031)217-0437 <b>하남은방울어린이집</b> T.031)790-2970
	<b>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b>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사랑들 www.holtlove.or.kr T.053)756-0183 아름들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들·아침뜰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T.02)322-3325 대전클로버 T.042)583-4006
	<b>해외원조사업</b>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전문기관이며 전국 13개 상담소를 통해 국내입양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 홀트가족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짜기에는 더 맑은 물이 흐르듯, 이 모진 겨울을 잘 견뎌낸 후 코끝을 스치는 봄바람은 움츠린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부풀게 합니다. 그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벌써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홀트아동복지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내실을 다지며 홀트에 부여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글맘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나눔’ ‘중증장애인 간병인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의 ‘홀트 드림센터’를 통해 아동결연, 방과 후 교실, 의료진료, 부모교육 등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활기차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입양법이 개정되어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엘렌은 “적게 거두고 싶은 사람은 적게 희생하고, 많이 거두고 싶은 사람은 많이 희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고단한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해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홀트아동복지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홀트가족 여러분! 얼굴을 스치는 상큼한 바람과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연을 즐기며, 모두 밝게 기지개를 힘껏 켜고 힘찬 출발로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대열 드림

# 오늘부터 엄마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5살 쌍둥이 자매를 입양한 이창미 씨는 가연이, 가은이의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일기장을 마련하고 꼬박꼬박 하루 이야기를 적어갔다. 이 이야기가 <샐터> 지령 500호 기념 공모인 '당신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드립니다'에 155: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 출판사 샐터의 도움으로 <오늘부터 엄마>라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창미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일기문 <고슴도치 아이>와 함께 이창미 씨 가족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 고슴도치 아이

H입양기관에서 연락 온 것이 2010년 2월 10일이고, 입양이 이루어진 것이 2010년 2월 23일이니 가연이, 가은이는 2주 만에 우리 집에 온 것이다. 2주... 참 짧은 시간이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진행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다. 하지만 내게는 보이지 않는 6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얼마 전 <고슴도치 아이>라는 동화책을 보았다. 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아무리 손꼽아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가 다른 사람의 배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할머니를 찾아간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뽕뽕뽕뽕 솟아 있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믿기지 않고 실망도 하지만,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자 가시는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너를 낳을 수 없었어.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엄마 대신 다른 엄마가 너를 낳아주셨지. 덕분에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야. 아가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세상을 향해 잔뜩 경계의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아이가 우리 가연이, 가은이 같고, 그 아이를 찾아 헤매던 엄마가 바로 나 같다. 고슴도치 아이와 엄마 아빠는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일군다. 우리 가족 이야기 같다.

작은 언니가 작년 12월 말 조카 시유를 낳았다. 늘 궁금한 게 많은 가연이는 매일 “엄마 시유 몇 살이에요?” 하고 물었다. 묻고 또 물어도 올해가 가지 않는 한 시유는 두 살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매일 두 살이에요?” 한다.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도 질문은 똑같았다. “이모, 얘기 낳았어요?” “이모 얘기 몇 살이에요?” 시유를 몇 번 만나더니 요즘은 첫 번째 질문은 하지 않는다.

시유가 자라는 걸 보며 가연이는 예전에 하지 않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얘기 때 이렇게 기어 다녔어요?” “나도 얘기 때 저렇게 했어요?” 하고 질문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저 “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려는데, “엄마가 그때 나 이



3. 3.  
여지 언니와 빈미를 데리고 근린공원에 와서  
뽕뽕공 가지고 신나게 놀았지.  
이때 누가 마렵다고 해서 한자랑을 가니 문이 잠겨  
옆 잔디에 뒤를 하라고 했었는데 뽕을 누서  
엄마가 당황했었다. (사실 그때 가은이었는지  
가연이었는지 헷갈리네.. 동 오레 건 아가야...T.T)

렇게 잡아줬어요?” 묻는다. 그 질문에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조용히 불렀다.

“엄마가 가연이, 가은이를 직접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 이모가 시유를 배 안에 오래 품고 있다 낳은 것처럼, 엄마도 너희를 그렇게 낳고 싶어서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됐지. 그래서 엄마 대신 다른 엄마가 너희를 낳아주셨고, 아기 때 사랑으로 잘 돌봐주셨단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우리 딸들을 찾으러 갔고, 너희가 다섯 살 때 만나게 됐어. 기억나지? 엄마가 직접 낳지는 못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는 마. 조금 늦게 만났지만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배 아파 낳았지만 너희는 엄마랑 아빠가 가슴으로 낳았어. 남들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게 틀리거나 마음 상해할 일은 아니란다.” 아이들은 내 말을 이해했다. 함께 웃으며 행복하다고 말해주었다. 조금 더 일찍 찾지 못한 게 미안하지만, 더 좋은 때에 우리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는다. 새근새근 잠든 우리 딸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절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진다.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엄마 아빠 곁에 와 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부터 엄마(샐터)/이창미 지음’ 중에서



3월 2일  
아이들쿨 입학날,  
이날 어찌나 웃었는지.. 빈미? 안방인냥

### 정신성 경화증 앓은 이창미 씨, 엄마가 되다

이창미 씨는 남편과 C.C.C(한국대학생선교회) 원주 지구에 있는 '뉴라이프'라는 찬양팀의 간사로 만나 2005년 2월 19일 결혼했다. 20대 초반 '정신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적이 있고 기적적으로 완치되긴 했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몸이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이창미 씨는 약 복용을 중단하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건강만 악화됐다고 했다. 그러던 중 평소 갖고 있던 입양에 대한 생각으로 홀트아동복지회의 한 사무소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래도 친생부모에게 아이의 장래와 행복을 위임받은 상담자는 엄마가 될 이창미 씨의 건강이 걱정돼 신생아 입양이 가능하다고 선뜻 답할 수가 없었다. 대신 '연장이 입양(만 3살을 넘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권했다.

그 일로 이창미 씨 부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연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기에 그냥 돌아서 나왔다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병명과 지나온 이야기를 괜히 상세히 말한 것이 후회스러울만큼 이창미 씨는 큰 낙담에 빠졌다. 그 뒤로 부부 사이에서 입양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2010년, 이창미 씨는 다시 입양을 떠올렸다.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마침 남편도 시간이 있을 때였고, 어쩌면 입양을 하려면 지금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보자"고 얘기하게 됐다.



발레복이 그렇게 좋아?  
 댄스레고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에도 안 먹고  
 발레복 입고 춤 머니..

그리고 들은 조언대로 '연장이 입양'을 알아보기로 하고 거절당했던 홀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입양절차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교회 부흥회에서 입양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 바로 다음날인 2월 10일 오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2년 만에 연락이 온 것이다. 5살 된 여자아이 쌍둥이가 있는데 입양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창미 씨는 감자기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감격과 안 그래도 입양하고 싶은 아이의 형제자매가 같은 기관에 있다면 함께 입양하는 게 좋겠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이미 한 차례 상담을 받았던 터라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다. 그리고 40개월도 안 된 가연이와 가은이를 사무실에서 만났다. 혹여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한 것과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 순순히 그들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그런데 "엄마 아빠 손잡고 잘 가!" 하고 배웅 나온 상담자의 말에 첫째 가연이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엄마 아니야"라고 답을 했다. 그러자 따라쟁이 둘째 가은이도 "엄마 아니야" 했다고.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다는 이창미 씨.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아이들과 익숙해지려고 '곰 세 마리'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니야!"를 외치던 아이들이 '엄마 곰은 날천혜'라는 구절을 부를 때 자신을 가리키며 "엄마"라 했다.

엄마... 내가 불러본 적은 있어도 누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던 이창미 씨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갑자기 하늘로 붕 날아오르는 느낌이었던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고. 이렇게 두 부부는 다섯 살 가연이, 가은이 쌍둥이 자매의 아빠, 엄마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행복한!



우리 씨백한 큰딸. 건강히 이쁘게 잘 자라주려 고사.  
 언니라고, 동생도 잘 챙겨주고, 엄마 아빠 심부름도 잘하니.  
 언니한테 볼을 보여주는 모습에 대반려를 때가 많았어.  
 딸이기도 잘하니, 큰누도 잘하니, 수연도 잘하니. 힘드신 가연이 운동선수가 되거나, 엄마 아빠가 함께 뛰게 주고 큰누도 많이 해주자 하는데, 운동 같은 건 많이 못해주려 미안해.  
 더 노력함은 엄마 아빠가 되게.



글\_김은희·홍보팀

## 5월의 특별함, 아이와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 날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돌아보게 하는 5일 어린이 날과 8일 어버이날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최근 변화된 가족 관계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함께 지켜줘야 할 의미 있는 날들이 더해졌습니다. 그 날들을 함께 기억하고 의미를 나눈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5월						
S	M	T	W	T	F	S
*5월에 기억할 가족 사랑의 날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8일 가정의 날 5월 15일 부부의 날 5월 21일						
국내에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했으며,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제정,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를 주제로 한 기념식과 행사를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입양의 날 취지와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친가정과 위탁가정이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함께 잘 키우자라는 뜻(아빠와 엄마 두 사람(2)이 내 아이와 남의 아이(2)를 함께 키우자'는 의미)에서 가정위탁의 날이 5월 22일로 제정됐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친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아동이 적합한 가정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날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처음 기념했다. '실종아동의 날'은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린리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1  
입양의 날

22  
가정위탁의 날

25  
실종아동의 날

# 축 처져 있는 지훈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지훈이. 위탁모 품에 안겨 있는 게 편한지 해맑게 웃는 지훈이가 예뻐 한번 안아보려 두 팔을 잡았더니 고개는 뒤로 젖혀지고 몸과 다리는 축 처진다. 두 팔과 온몸을 이용해 힘껏 지훈이를 안았는데... 팔이 아플 정도로 무게감이 느껴졌다. 힘겹게 내 몸에 기대 있는 지훈이. 13개월의 지훈이는 고개도, 팔 다리도 가누지 못하는 4개월 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뇌실주위 백질연화로 인한 발달지체

지훈이(13개월, 가명)는 미혼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출생 직후 양안실명, 상세불명의 근긴장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긴장이상은 지속적인 근육수축에 의해 신체의 일부가 꼬이거나 반복적인 운동, 비정상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인데, 당시는 신생아라 장애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태어난 지역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입양가정을 찾았으나 아무래도 장애가 의심되다 보니 예상대로 입양가정은 없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나 지훈이는 서울 위탁가정으로 오게 되었다. 홀트의원 첫 진료 시 지훈이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 정재원 원장은 “출생 때 병명을 보면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셨다.

혈액검사와 MRI 등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졌고, 눈동자 움직임 이상으로 안과 검사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종합검사 결과가 나왔다. 뇌실주위 백질연화(Periventricular Leukomalacia), 괴사된 뇌백질이 뇌실 주변부에 있게 되면 뇌성마비, 발달지체, 행동문제 등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데 지훈이에게는 발달지체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안과검사 결과 조절 마비, 무의식적으로 눈이 움직이는 안구진탕(Nystagmus)증도 의심된다 했다. 뇌의 이상은 예상했던 부분이었지만 시력까지 사라진다니 지훈이가 살아갈 앞날이 너무 걱정스러워 낙담이 밀



1 다리 힘을 키워주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2 위탁엄마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지훈이다

려왔다. 그런데 지난 2월, 홀트부의원 발달검사서서 다행히 눈이 물체를 따라 움직이는 듯하다며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간질과 같은 경기 증상이 시작돼 치료제도 복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육 움직임이 적다 보니 삼키는 기능도 저하돼 약을 먹기도 힘들다. 분유를 먹을 때도 젓병 빠는 소리만 크고 우유는 들어가지 못해 쉬었다 먹기를 반복한다는 지훈이...

## 발달 나이 4개월 지훈이를 향한 모두의 바람

첫 돌이 지났는데도 지훈이는 겨우 뒤집기만 가능하다. 근긴장 저하로 작년 7월부터 홀트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시작해 건진 그나마의 쾌거(?)지만, 발달 수준은 여전히 4~5개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축 늘어져 안기도 버거운 지훈이를 조영순 위탁어머니는 업고, 안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재워주기를 8~9개월 동안 하셨다. 17년 동안 52명을 사랑으로 돌봐오셨고 유독 장애아동과 연이 많은 분이시기도 하다. 지훈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자고 집에서는 배 주변에 수건을 두르고 보행기에 잠깐 앉혀도 보는 등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탁어머니. 하지만 지훈이는 야속하게도 몇 초를 버티는 것도 힘들어 한다.

“지훈이는 누워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모습이에요. 조금이나마 자극을 줘야 할 것 같아 눈 맞추며 이야기하기, 까꿍 놀이, 간지럼 태우기, 눈 맞추며 노래 부르기, 장난감을 지훈이의 가슴에 두고 흔들어주기 등의 놀이를 같이 해요. 전 지훈이가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예뻐합니다.”

장난감을 지훈이 몸 가까이에서 흔들어주면 지훈이가 손으로 잡고 흔들기도 하는데,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무척 기뻐했다는 위탁어머니. 위탁모와 함께 ‘파이팅’ 하며 손을 들고 밝게 웃는 지훈이를 보니 지훈이 또한 ‘저도 힘낼게요~’라는 의지를 내보이는 듯해 절로 웃음이 나온다. 조영순 위탁어머니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지훈이가 스스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염원과 바람이 힘이 되어 지훈이를 일으켜줄 수 있기를...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훈이 혼자 앉고 일어서기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바란다. **HOOT**

글\_ 박혜연 · 홍보팀



##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강찬이는

삐에로 로빈 증후군(Pierre Robin Sequence)을 가진 강찬이는 여전히 코를 통해 우유를 주입하고 있지만 토하는 양이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어 제 몸무게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는 강찬이. 여러분의 관심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02-331-7073~4

www.holt.or.kr

기업은행 048-036405-04-014

# 달리고 싶은, 소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다

걷는 다는 것,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캄보디아의 한 소녀에게는 꿈처럼 이루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가 한발짝 내딛는 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선물받은 넝래티나의 이야기.



1 주치의 문정석 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 캄보디아에서 한국까지 넝래티나의 보호자가 되어준 말리 홀트 이사장 3 함께 온 친구 스레이야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 선한 영향력

말리 홀트 이사장의 오랜 지인이 홀트가 시작한 캄보디아 해외원조사업을 듣고 캄보디아 캄푸주에 있는 장애아동 고아원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줬다. 캄보디아의 한 남성이 자비량으로 운영했던 고아원이었는데, 남편의 사망 후 아내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양육해오고 있는 곳이었다. 말리 홀트 이사장이 처음 한국 아이들을 만난 것도 1950년대 고아원이었던지라 애뜻한 마음에 지난해 캄보디아 방문길에 그 고아원을 찾았다.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중 특별히 우리 눈에 띈 소녀들이 있었다. 변형된 발과 약하디 약한 발목 근육으로 제대로 된 보행이 어렵고 몇 발짝 떼는 것도 힘겨워 하던 넝래티나(Neng Rathana, 19세), 눈이 예쁜 소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리고 서류상 부모는 있지만 뒤로 접혀진 다리로 인해 버림받은 탓에 옷은 모습조차 슬퍼 보였던 스레이야(Srey Ya, 19세).

한국의 의술이라면 이 아이들의 다리뿐 아니라 미래도 바꾸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국에 돌아와 바로 이 두 소녀를 수술해줄 병원을 찾아 나섰다. 돕겠다고 작정하니 곳곳의 선한 사람들이 보였다. 홀트부속의원 정계원 원장의 부근계서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것. 부천 예순병원에서는 어떤 장애가 됐든 모든 수술과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흔쾌히 승낙해줬다. 또한 캄보디아 한국대사관(감한수 대사)에서는 두 소녀에게 한국 비자를 선물했으며, 봉사여행을 나섰던 홀트 후원회원들은 태어나 해외 여정이 처음인 두 소녀가 무섭지 않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동행해줬다.

## 처음 밟은 한국 땅, 처음 찾은 병원

단지 5시간을 날아왔을 뿐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두 소녀에게 흠 냄새 나는 고향과는 전혀 다른, 높은 건물이 솟아 있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머무르게 될 일산복지타운으로 향하는 길, 잘 닦여진 길 덕분에 덜컹거림 없이 편안한 여정이었다고 했다. 매끈하게 포장된 도로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두 소녀를 통해 새삼 알게 되었다.

11월 19일, 잠을 자는 동안 마는 등 한 뒤 여전히 경직되고 긴장된 모습으로 정밀 검사를 위해 예순병원으로 향했다. 주치의가 정해지고 상담과 검진이 이루어지는 내내 두 소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 모든 검사가 끝나고 문정석 주치의의 만났다. 넝래티나는 양쪽 발목 수술을 시차를 두어 진행하고 3개월 가량의 재활치료를 받으면 정상 보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제야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던 탓일까. 스레이야는 장애를 가진 다리에 신경이 없어 절단을 하고 의족을 끼운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대하는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푼 기대를 안고 먼 길을 날아온 스레이야는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친구의 수술을 본인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한 달 뒤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넵라티나 양의 두 발은 관절과 관절을 지탱해주는 힘줄 이상으로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병원에서 보내온 진료 기록으로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낯선 한국에 오는 것도 힘들 텐데... 개인적으로는 수술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주고 싶었죠. 저희 병원에서 첫 진료 결과 물론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좀 더 넵라티나 양에게 적합한 수술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발목 관절은 다행히 괜찮지만 발목을 지탱하는 힘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 정상인 바깥쪽 힘줄을 안으로 옮기는 수술(아킬레스연장술)을 했죠. 그리고 경과를 지켜본 후 상태가 중한 왼쪽 발 수술을 했습니다. 왼쪽 발은 정상적인 발과 달리 관절이 변형돼 이를 제 위치로 잡는 수술(장비골건 및 장족지굴건 이전술)을 했습니다. 오른쪽 수술 때보다 힘들고 아팠을 텐데도 잘 참고 따라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는 아주 괜찮습니다. 물론 재활치료 경과를 봐야 더욱 확실해지겠지만, 일단은 넵라티나 양이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키우고 다리와 발목 힘을 길러야 하거든요. 이번 수술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을 도울 기회를 받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로 바쁘게 살다보니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천이 어려웠는데...

이번을 계기로 봉사를 더 깊이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넵라티나 양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람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본인이 도움 받은 만큼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가 캄보디아어로 '중례빌'이라고요. "중례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소재한 예순병원엔 척추와 관절, 수부, 족부 전문병원으로 20명의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넵라티나 양의 4달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넵라티나 양은 수술과 재활을 무사히 마치고 4월 캄보디아, 자신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나눔이 지켜준 넵라티나의 꿈

아킬레스연장술, 장비골건 및 장족지굴건 이전술로 불리는 수술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예순병원 의료진의 섬세한 배려와 도움으로 1차 수술도, 대수술이었던 2차 수술도 넵라티나는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달라질 다리와 미래를 기대하며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넵라티나는 아직 한국의 영하의 기온에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풍도 보고 눈도 보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11월에 첫 수술을 하고 마취에서 막 풀렸을 때의 넵라티나를 잊지 못한다. 수술 후 통증도 통증이겠지만 할머니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홀로 누운 자신의 모습이 많기도 서러웠나보다. 조금만 건드려도 소리 내어 울 것 같은 얼굴로 누워 있던 넵라티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보고 싶니?” “네, 많아요.” “전화번호 기억하지?” 핸드폰을 건네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곧 눈이 촉촉해진다. “할머니, 저 넵라티나예요. 별일 없죠? 저는 오늘 수술받았어요. 많이 아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계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다. 한결 후련해진 듯 넵라티나는 곧 잠이 들었다. 아마 꽃이 피는 3월이나 4월, 봄 향기를 머금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을 테지.

넵라티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짧게나마 한국을 경험한 넵라티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을 가르치는, 그리고 나눔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방과 후 수업으로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원조사업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홀트 씨 부부의 선한 마음이 이 땅에 큰 결실을 맺었듯 우리도 늘 빛진 자의 마음으로 캄보디아를 품고 씨 뿌리며 결실 맺을 날을 꿈꾸고 있다. 아직 우리가 연락하고 미련해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안타깝게 손잡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찾아내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기다려본다. **Heart**

글 \_ 이은정 팀장 · 복지지원팀



##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넵라티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 고향인 캄보디아 캄푹 주의 한 고아원에 살고 있던 아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다리 수술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부천에 있는 예순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순병원은 매우 크고, 아주 깨끗했어요! 특별히 저를 잘 도와주셨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언니들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만수무단을 받은 후의 느낌은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 늘 환상 속에 있었죠. 다른 보통 사람들과 같이 온전하게 걷는 내 모습을 혼자 상상해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환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저를 도와주시는 언니들이 환상이나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더 이상 제 걷는 모습을 보고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온전한 다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속상한 건 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도움을 베풀어주시는 분들께 되돌려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받기만 했을 뿐 값을 걸지 않은 게 한없이 속상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게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지지해주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도와주신 예순병원의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언니들, 숙식과 모든 생활을 지원해주신 말리 홀트 이사장님, 조병국 원장님, 김대열 회장님,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모로 돌봐주시는 후원자님들과 홀트 직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운이 저게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그리고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도와주신 예순병원의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언니들, 숙식과 모든 생활을 지원해주신 말리 홀트 이사장님, 조병국 원장님, 김대열 회장님,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모로 돌봐주시는 후원자님들과 홀트 직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운이 저게 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그리고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넵라티나 드림



# 나눔이 주는 감동과 행복

2013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후원 사연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나눔은 행복이고 감동'이라는 것. 그 행복은 받는 이에게도 주는 이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파된다는 겁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새해 만난 첫 행복, 첫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이야기 하나

### 17세 어린 엄마가 기부한 해산급여 50만 원

구정이 지난 어느 날 사랑뜰 후원금 통장으로 낯선 누군가(정\*\*)의 이름으로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이체됐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기부해주신 분과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감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았더니, 바로 얼마 전까지 '사랑뜰'에서 도움을 받던 한 미혼모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딸이 사랑뜰에서 지내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미혼모 친구들, 그리고 선천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아기를 보고 같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설을 퇴소하며 받은 해산급여 50만 원을 대신 후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요. 딸에게도 도움이 될 적지 않은 돈이라 어머니도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갑작스런 딸의 임신으로 딸도 가족도 모두 힘들었을 때 사랑뜰을 통해 소중한 도움을 받았기에 딸의 뜻을 존중해 기쁘게 후원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2012년 추운 겨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낯설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미혼모자시설 '사랑뜰'의 문을 두드리던 17세의 어린 소녀가 아픈 만큼 성숙해져 자신이 받은 도움을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 나눔에 직원들 모두 감동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금 퇴소하며 남긴 입소 후기를 꺼내 읽어봤더니 새삼 어린 소녀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시설에서 내가 받은 만큼 후원하며 살고 싶다.' 나눔은 다시 나눔으로, 여러 후원자님들이 베풀어주시는 사랑은 되돌아오는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소녀가 감사를 느끼고 자신도 후원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사랑이 돌고 돌아온 것처럼요.



## 이야기 둘

### 착한 심장을 지닌 아이의 특별한 기부

"안녕하세요~ 저기... 특별한 후원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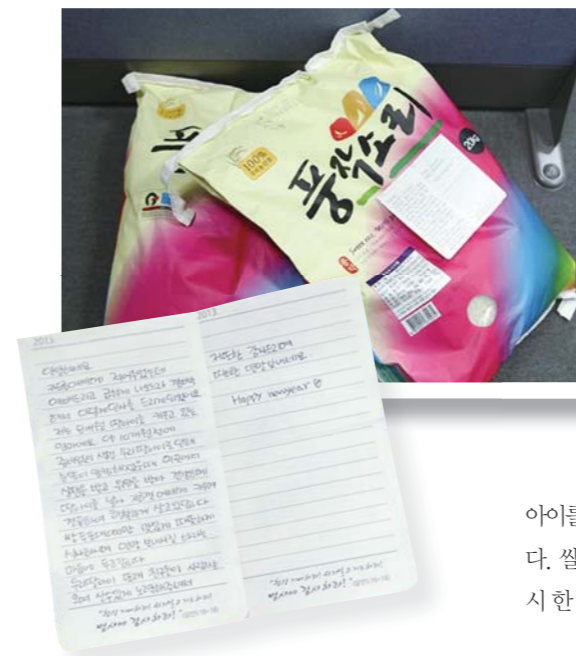
후원 상담 전화를 받던 중 2년 전에 상담했던 후원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목소리에 무척 반가웠습니다. 결혼 9년 만에 귀한 수인이를 낳고 '280일의 설렘' 기부에 참여해 주신 수인이 어머니 하계역 후원자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인이가 심장이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은 완치돼서 감사의 뜻함으로, 또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돼 생일 후원을 하려고 연락드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들게 기다린 아이가 심장수술까지 했다니!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어쩌면 좌절된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때 상황을 말씀해달라 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순간 걱정과 고민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민을 싹 지워버리듯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밝은 웃음과 함께 전해지는 목소리가 다행히 힘차고 행복한 듯 느껴져 함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태어난 순간에도, 아픈 순간에도 많은 친구들에게 나눔을 통해 사랑을 전달해준 수인이는 착한 심장을 지닌 아이입니다.



## 이야기 셋

### 한 어머니가 두고 간 쌀 두 포대



2013년 1월 3일 새해 첫 출근 날, 홀트아동복지회 본부 입구에 쌀 2포대와 친필로 쓴 2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편지를 읽는 순간 보고 싶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감사한 분. 단순 후원을 넘어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를 예쁘게 적어두었는데 예뻐드리고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8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약 10개월 전에 준비 없이 생긴 우리 딸아이로 인해 눈앞이 캄해졌을 때,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위안을 얻어 건강하게 딸아이를 낳았고, 지금껏 예쁘게 키우며 결혼까지 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쌀 두 포대지만 맛있고 따뜻하게 식사하시면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홀트

글 \_ 정기영 · 사랑뜰, 방은지 · 후원팀, 박혜연 · 홍보팀



##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온 봉사의 삶

홀트아동복지회 의료자문위원  
조병국 원장을 만나다

50년의 시간 동안 고아와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들과 함께하며 소외된 아동의 건강과 미래를 보살펴온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이하 홀트병원) 조병국 원장. 원장에서 봉사자로, 그리고 이제는 24시간 홀트일산복지타운 장애인들 곁에서 생활하며 의료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 팔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또렷하고 맑은 음성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짚어보는 조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 사명을 따라 내디딘 첫 걸음

6·25 동란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1960년대 대한민국.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치도록 많은 게 몇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와 병든 어린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던 30대의 젊은 의사 조병국 원장은 홀트아동병원에 진료 봉사를 나왔던 첫 발걸음을 '책임'으로 기억합니다.

“시립아동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딱한 사정의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홀트에서 봉사를 시작한 것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였어요.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항생제 한 알이 없어 목숨을 잃는 어린이도 있었거든요. 의사로서 병들고 버림받은 어린이를 진료하는 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이름 모를 질병으로 형제를 잃어야 했던 조 원장. 아픈 기억은 그를 자연스레 의술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병들고 버림받은 어린이를 향한 조병국 원장의 사명의식은 이렇듯 시작부터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 ● 가족 사랑을 찾아가는 길, 'Why not?'

조 원장은 시립아동병원을 거쳐 1972년부터 홀트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이미 훌쩍 넘긴 나이. 20여 년 전 형식상 퇴임식을 갖고 은퇴를 했지만, 그 후 다시 '의료 봉사'의 형태로 홀트병원과 홀트일산복지타운 원장직을 수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자의 입장에서 홀트와 함께하고 있는 조병국 원장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홀트를 찾았던 50년 전 모습처럼 한 명의 봉사자로 돌아왔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병국 원장은 지난 50년간 가족의 사랑으로 기적을 꽃피워내는 어린이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입양 후 불과 몇 년 만에 건강해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럴 때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족이 하는구나' 생각했지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최고의 의뢰진이 보살핀다 해도 가족의 사랑만큼 좋은 명약은 없어요.”

생부모조차 아이를 포기하게 만든 힘겨운 장애나 질병 앞에 조병국 원장은 항상 'Why not?(와이 낫?)'이라고 되물었습니다.

홀트를 통해 자녀를 입양한 양부모들은 조 원장의 '왜 안 돼요?'라는 반문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픈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혹독한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도 가정을 찾을 수 있을지, 세상의 편견 속 입양가정이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을지... 조 원장은 이 모든 의구심에 이렇게 답해주었습니다. “가족의 인연은 사람이 맺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아이를 위해 준비된 길은 우리의 짐작을 뛰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안 될 거라며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노력하고 두드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모든 어린이에게는 희망이 있고, 아이를 위해 준비된 사랑과 미래가 있으니까요.”

### ● 이 시대 '사랑의 무게'를 생각한다

“그냥 아이들이 좋고 제 일이 좋아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도 진료를 볼 수 있는 건강과 정신이 허락됨에 감사할 따름이죠. 나를 필요하다고 찾아주니 여기(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내 삶 마지막까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병국 원장은 홀트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2년 국민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생명, 파라다이스재단, 보령의료재단, MBC 등 여러 기관에서 수여하는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홀트와 함께한 세월을 적어 내려간 자서전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로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굶주림이나 전염병으로 죽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대신 생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있어요. 가족의 학대와 무관심에 시달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삶에 여유가 생기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책임감이 없는 어른 탓이라 생각해요. 비혼부모 문제나 가정폭력 문제 등에 있어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무게가 그리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 빚어내는 기적, 그 안에서 꽃봉오리 터지듯 건강하게 피어나는 입양아동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한 평생을 바친 조병국 원장. 반짝이는 눈빛과 정정한 모습은 현신의 세월이 가져다준 선물일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 살았지요. 정작 제 가족에게 소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기에 후회는 없다 말하는 조 원장의 웃음이 한없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홀트**

글 \_ 박세라 · 재능기부봉사자

# 근사한 노력과

홀트 학교 플로어하키 팀



## 찬란한 열정이 빛어낸 눈부신 은메달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뉴스 멘트가 낫설지 않았던 겨울,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홀트체육관에서는 1월 19일부터 펼쳐질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이하 스페셜올림픽)'를 앞두고 플로어하키 연습이 한창이었다. 경기장 안에도 바깥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들어와 입김이 절로 나올 만큼 서늘한 공기가 가득했지만, 그걸 조금씩 덜어내는 건 초롱초롱한 눈으로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의 땀과 찌렁찌렁 울리는 함성이었다.

### 생경하지만 재미있는 스포츠, 플로어하키

플로어하키는 하키와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다. 선수 16명과 코치 4명이 팀을 이루 나무나 우레탄 바닥으로 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짝은 일반 짝보다 크고 도넛처럼 가운데가 뚫려 있으며 천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스틱에 끼워 드리블, 패스, 슈팅을 한다. 스케이트 대신 운동화를 신고,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긴다.

경기는 한 피리어드당 9분씩, 총 3피리어드 27분 동안 진행되는데, 감독은 3분마다 이루어지는 선수 교체에 모든 선수가 고르게 출전할 수 있도록 시간 분배에 신경 써야 한다. 출전시간이 크게 다른 선수가 있을 경우 물수패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룰이 다소 복잡한 편이지만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경기를 지켜보는 코치들도 즐겁게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 입김도, 추위도 두 손 들어버린 놀라운 노력과 근성

홀트학교 이화원 감독은 아이들과 처음 플로어하키 훈련을 시작하던 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저희 팀이 2012년 4월에 만들어졌어요. 플로어하키에 필요한 패스, 드리블, 슈팅을 연습시켜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패스가 뭘지 드리블은 어떻게 하는 건지 슈팅을 해야 점수를 얻는다든지, 또 스틱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짝은 손으로 던지면 안 된다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서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았어요. 운동 시작 전 몸풀기 체조할 때 동그랗게 대형을 만들어 서는데, 이걸 해내기까지 꼬박 두 달이 걸렸을 정도니까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훈련시킨다는 게, 그것도 팀을 결성한 지 1년도 안 된 아이들을 국가대표로 키워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듯. 하지만 하교 후, 그리고 방학도 반납한 채 이어진 이화원 감독 이하 코치들의 노력은 아이들의 열정과 합쳐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지상 훈련도 강도가 꽤 센 편이고 경기장 안에서 하는 훈련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엄청났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 플로어하키는 신나서 좋아요!

몸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선수들에게 물었다.

“플로어하키가 왜 좋아요?”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신나잖아요! 골이 들어가면 정말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된다니까요!” 열다섯 선수들은 그저 신나는 모양이다. 무거워 보이는 보호장비도 알아서 척척 잘 착용한다. 경기 내내 뛰어야 해서 운동량이 상당할 텐데도 지친 기색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훈련이 계속될수록 함성은 높아가고 움직임도 민첩해진다. 그저 '신나서'라는 것만으로 이 아이들의 열정과 맘을 설명할 수 있을까.

### 플로어하키는 다 같이 하니까 좋아요

플로어하키는 이번 스페셜올림픽 중 유일한 단체종목이다. 지적장애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룰을 최소화했고, 모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시간 조절'이라는 룰을 추가했다.

아이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게 좋다는 걸 플로어하키를 배우면서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미로 이해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규칙 준수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아이들은 감독과 코치의 말을 차차 따라하고 기억하기 시작했고, 플로어하키의 팀워크 역시 차근차근 좋아졌다. 몸 푸는 체조도 옆 선수를 챙겨가며 하고, 보호장비 착용도 서로 도와가며 한다. 아이들에게 '함께'라는 단어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플로어하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재미나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 때론 고단하지만,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이화원 감독을 비롯한 최명안·박해리·김인환 코치는 입을 모아 말한다. "힘들다기보다 지칠 때도 있지만,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라고.

팀이 이루어지자마자 국가대표가 되고 스페셜올림픽에 나가게 됐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감독과 코치들이 기울였을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일.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고 습관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이들은 덧붙인다.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또래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도 호기심 많고 얌메이는 거 답답해하죠. 그래서 이번에 단체생활 시작하면서 아이들 부모님께 '합숙 장소에 오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보면 아이들은 어리광을 부리는데 이러면 단체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어야 경기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죠. 이걸 고생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될 것 같네요."

###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이죠!

헬멧을 벗고서야 이 아이들이 지적장애를 지닌 아이들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발전 속도는 경이롭다. 이화원 감독은 이야기한다.

"물론 경기를 하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골을 한 번만 넣는 것이라



걸 인식하지 못해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넣는 해프닝도 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최근엔 장애 정도가 낮은 아이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예전보다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 하나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걸 보면 짜릿한 보람 같은 걸 느껴요. 몽글몽글 만큼 행복하기도 하고요."

### 돌직구 같은 맘과 노력이 만든 값진 은메달

2013년 2월 4일 T8 결승전!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낸 선수들, 가르친 대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수들을 믿은 코치진. 이들의 멋진 호흡은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가 되었다. 올림픽 출전 전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못 따면 아쉽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다.

재기발랄 씩씩한 추한솔(18) 선수는 대답했다. 금메달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먼저라고. 과연 우문현답이다. 그 대답은 훌륭한 결과로 이들을 찾아왔다. 안성웅, 정해선, 이다니엘, 김승현(전공과 2학년), 최경재, 오영균, 김정훈(전공과 1학년), 김석림, 강신욱(고등학교 3학년), 추한솔(고등학교 2학년), 심재석(중학교 2학년), 조태현(이상 홀트학교 참가자), 이화원 감독, 최명안·박해리·김인환 코치. 이들의 '함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글 \_문재연·재능기부봉사자



# 마음 가득 혼풍을 불어넣은 사랑의 목도리

26년 만의 한파가 찾아왔던 지난 12월, 청계광장에 불어온 칼바람은 희망바람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도리

어릴 적 어머니께서 직접 짜주시던 털실 목도리를 기억하시나요? 직접 뜬 목도리를 돌려주시면 항상 까슬까슬해서 불편하다고, 예쁜 것으로 사달라고 불평하곤 했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머니의 목도리는 '사랑과 온기'가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도리'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한 어머니가 짜준 '사랑의 목도리'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는 행사가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계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도리! 어머니가 품은 사랑의 마음은 이웃의 마음으로, 나에게 준 목도리는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돌봐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의미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고, 공익캠페인 기업 레디두가 주관하며, 현대홈쇼핑의 후원과 유스트림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풍력으로 짜는 사랑의 빨간 목도리

단순 기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풍력으로 목도리를 짜는 '바람개비 구조물'이 제작됐습니다. 이 '바람개비 구조물'은 연료가 아닌 바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설계됐으며, 또한 온라인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소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털실을 기부하면,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직접 기계를 작동시켜 목도리를 만들어볼 수도 있어 많은 분들이 가던 발길을 멈추고 청계광장에서 기부를 즐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날에도 불구하고 4,300명의 현장 참여와 SNS 참여로 50m 길이의 목도리가 완성되었으며, 이것은 곧 홀트아동복지회 꿈둥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 한 코, 한 코에 담긴 희망바람

### #1 노래로 함께한 바람

기부공연으로 연을 맺었던 DF팀은 직접 음향기계까지 운반하며 공연해주었습니다. 노래하는 입도 열고, 기타 치는 손도 땀 흘렸지만 사랑과 나눔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무한 에너지가 샘솟나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2 온라인에서 불어온 바람

오프라인 참여 외에도 SNS에서 1,500여 명의 '좋아요'와 리트윗을 통해 목도리를 짤 수 있는 털실이 기부되었고, 소셜 펀딩을 통해서도 1,263,740원의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스트림의 후원을 통해 현장의 상황이 24시간 중계돼 그 생생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3 풍선이 만들어준 바람

풍선아트 재능기부를 펼쳐주신 양은미 후원자님. 유치원 선생님이라 오전부터 아이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오셨을 텐데도 캠페인장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 풍선칼을 십 없이 만들어 선물해주셨습니다.



### #4 LOVE IN ACTION 바람

그리고 함께해준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얼 내내 발이 뽀뽀 열어가면서 캠페인을 알리고 진행한 스태프들... 사랑의 목도리를 만들어주는 바람이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추워서 행사 내내 울 수도 옷을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또, 한 줄로 길게 짜인 목도리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여러 자원봉사자님들이 100여 개의 목도리를 가공하고 하나하나 포장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신기하고 좋은 일 한다며 등 토닥여주신 어머니, 말없이 오셔서 모금함에 돈 넣으시고 모르는 척 지나가셨던 할아버지, 아기가 제 손으로 처음 해보는 나눔이라며 함박웃음으로 목도리 짜는 기계를 돌린 가족 등 여러 모양으로 행복한 바람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글\_김유진·후원팀



스포츠조선 가족들



위탁모와 아동, 손태영 씨, 박진희 씨, 전현무 씨, 박휘순 씨와 함께



# 똑똑똑 홀트병원이 달라졌어요!

어린이 동화책을 보면 착한 사람을 돕는 요정이 자주 등장한다. 알라딘을 돕는 램프의 요정 지니, 구두방 할아버지를 도와 주는 꼬마 요정 등... 곤란함을 겪는 주인공을 도와 해피엔딩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주인공들. 홀트아동복지회에도 2013년 새해 네 명의 상상요정(?)과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홀트 의원이 위탁아동들을 위한 새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홀트아동복지회 본부 사옥이 마포구균형축진개발로 땅을 기증하고 6층 새 건물을 받아 지난해 7월 이사했다. 1960년대 아동복지를 시작했던 그 자리(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그리고 새 건물이라는 흥분도 잠시. 웬지 손때 가득, 사연 가득 문헌 옛 건물이 그리웠다. 그런데 건물이 낫선 건 직원들뿐 아니라 위탁아동들 역시 마찬가지인 듯 보였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아이들의 주공간인 홀트의원이 이전보다 좁기도 한데다 사무공간이다 보니 딱딱하게 느껴졌을지도.

홀트 의원은 한 달에 350여 명의 서울지역 위탁아동들이 입양 전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넘게 진료받고 치료받는 곳이지만, 아동보호시설이 아니기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마음은 있어도 인테리어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직원들이야 대충 살림만 있으면 일하기에는 부족함 없지만 위탁아동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바라면 이루어진다 했던가! 한 후원단체를 만나면서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바로 <스포츠조선>. 이곳 TFT팀이 디자인과 재할용을 결합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재구성할 아이템 장소를 찾던 중 홀트 의원이 선정된 것이다. 이름하여 '상상 주식회사!'

## 병원을 넘어 아이들과 위탁어머니를 위한 공간

똑똑똑, 쿵쿵쿵 소리가 이어지고 한 떼거리(?)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드디어 새롭게 꾸며진 홀트병원이 1월 26일 공개됐다. 하얗던 벽면은 풀 향기 먹은 그린의 친환경 벽지로 바뀌었고, 병원의 공기 정화를 위해 최고 품질의 피톤치드가 코팅됐으며, 벽에는 울던 아이도 멈추게(?) 하는 텔레비전까지 설치! 어른들만 사용했던 다용도 싱크대는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해 제작됐다.

아기자기하게 놓인 친환경 장난감과 친환경 이불, 인형들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아이템. 아마 며칠 못 버티고(?) 곳곳으로 흩어져 사라지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풍성한 장난감에 보는 아이들도, 위탁어머니들도 신났다. 편백나무로 만든 의자에는 가격에 한 번 놀라고 120년 된 나무라는 소리에 두 번 놀랐다! 슬쩍 앉아보고 만져보고... 아이들은 장난감에 몰려 있고 어른들은 새로 들인 살림을 보는 재미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매트며, 아이들 돌보느라 실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위탁어머니들이 잠시 물 한 잔,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쁜 마음으로 디자인됐다는 테이블까지. 홀트병원은 숨은 노력들로 인해 예쁘고 쾌적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 함께해준 네 명의 요정과 친구들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조카 같은 아이들이기에 내 살림 만들 듯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네 분, 손태영 씨, 박진희 씨, 전현무 씨, 박휘순 씨. 오랫동안 진료받을 아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자연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직접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테이블도 만들었다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시나마 웃고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바라며 제작한 자신들의 얼굴이 담긴 쿠션까지!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시간이었다'고 말해준 박휘순 씨, 꼭 자원봉사를 다시 오고 싶었던 박진희 씨, 내 아들의 친구들이기에 더 애뜻했다는 손태영 씨, '자신의 사진을 보고 아이들도 웃고 어머니들도 힘든 순간에 잠시 웃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한 전현무 씨! 우리 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위탁아동들을 위해 노력해준 그들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상상을 현실로 이어준 스포츠조선, 보스디자인 김정은 대표, Yesco 홈서비스, 숲소리 등 함께해주신 후원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예쁘게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Holt

글\_김은희·홍보팀



# 25년 만에 홀트보호작업장이 새 동지를 틀었어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홀트보호작업장이 지난 1월 29일 반지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났다. 소핑백 끈 끼우기의 단순노동이 고작이었던 이들은 이제 콩나물 기르기, 도자기 공예 등의 새로운 작업을 통해 자립의지를 키우기 시작한다.

## 희망이 피어나는 '홀트보호작업장'

홀트보호작업장 1층 커피전문점 '카와(Qahwa)'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 퍼진다. 이는 새 보호작업장이 생긴 뒤 달라진 풍경.

“이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던 분위지요. 작업장에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치는 친구들도 커피향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국가대표 휠체어 농구선수 출신이자 현재는 바리스타인 조승현(30) 씨가 웃음 띤 얼굴로 이야기한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만큼이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진 보호작업장. 어둡고 칙칙한 반지하 교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현재 이곳에서 캐셔를 맡고 있는 백미화(45) 씨를 비롯한 4명의 장애인은 조승현 씨에게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며 자립 준비를 하고 있다.

'카와'는 훈련생들을 위해 로열티를 받지 않고 카페 운영과 관리,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수해주고 있다. 그동안 단순노동에만 그쳤던 작업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2011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20억 원을 내고 정부보조금 5억 원을 들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증축된 작업장이다. 연면적 3,000㎡나 되는 3층 건물로, 1층에는 커피전문점과 콩나물 재배장, 도예공방이 있고, 2층에는 기존의 봉투 만들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넓은 작업장이 마련됐다. 이 작업장에서 홀트타운 거주 장애인 50명과 퇴소·재가 장애인 26명이 직업재활훈련교사 4명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직업재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바리스타, 공예, 콩나물 재배 등 다양한 일을 배워 사회에 나가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의지를 키운다.

“훈련생의 평균 임금은 월 15만 원가량이지만, 능력에 따라 45만 원 이상을 받는 장애인도 있다”며 직업훈련 과정이지만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알려주는 교사 김유지(25) 씨. 지금까지 해왔던 소핑백 끈 묶기와 김장봉투 접기 같은 단순 작업은 개당 20~30원밖에 받지 못해 수익 발생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전보다 나은 수익금이 발생해 훈련생들에게도 희망이 보인다.

## 자립의지 키우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위생복을 차려입은 훈련생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콩나물 재배장. 중증장애인 16명이 함께 일하는 이곳의 콩나물은 성장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소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유기황을 넣어 적정 온도에서 5~6일 정도 기르는 친환경 농법으로 콩나물을 생산한다. 훈련생들은 콩나물을 고르고, 씻고, 봉투에 넣는 등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일하는 동안은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행여 실수라도 할까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훈련생들.

“처음에는 콩나물을 고르고 씻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새로 배우는 일이 꽤나 흥미로운지 훈련생 서희목(40) 씨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단순작업이 이들에게는 고난도의 노동.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어렵다고 포기하려는 훈련생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자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할 만큼 일이 손에 잡혔고, 그래서 일할 때만큼은 장난도 치지 않고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임한다.

“훈련생들이 단순 작업만 하다 콩나물을 재배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찾더라고요. 아직은 직원들과 센터에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에게만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훈련생 모두에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해주고 싶어요.”



1 콩나물 재배장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2 홀트보호작업장 전경 3 1층 커피전문점 '카와'에 놀러오세요  
4 봉투접기로 돈 벌어서 우리 식구들 맛난 것 사줄래요~  
5 도예공방에서 제 꿈을 키웁니다

생산판매 교사 황보성봉(32) 씨가 훈련생들의 움직임에 대한 뿌듯함 반,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도록 돕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반을 섞어 하는 말이다. 훈련생들의 생산 활동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품의 정해진 판로가 없어 생계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홀트보호작업장의 책임자인 정순규 원장은 “훈련생들의 급여는 물론 이곳을 거쳐 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으로 아무 문제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홀트보호작업장이 앞으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훈련생들을 위한 사회적 발판이 되길... 곧 그런 날이 오리라 믿는다. **홀트**

## ● 사회공헌 ●

### (주)아미코스메틱 후원물품



코스메슈티컬 전문 회사인 (주)아미코스메틱(대표: 이경록)은 소외계층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바자를 열고, 미혼모자시설에 12월 20일 약 5,400만 원 상당의 희망 나눔 화장품을 전달했다.

### (주)씨에이팜 임신부용 기능성 화장품 후원



임산부 및 유·소아 전문브랜드 (주)씨에이팜은 12월 6일 4,000만 원 상당의 임신부용 기능성 크림 및 로션을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약식 체결



우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최형규)은 12월 4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등급 계란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 ● 본부 ●

### 온기 가득했던 '정혜영 장학금' 전달식

우리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부천사 선·정혜영 부부가 2월 25일 '정혜영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는 후원자와 홍보대사 지원으로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연 8,0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날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서 1박 2일 자원봉사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장학생봉사단 홀트 서포터지'를 구성, 캄보디아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예정이다.

### 제4회 탐리더스 정기총회 열려



소외된 이웃의 복지증진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우리회 객역기부자 모임인 '탐리더스'는 1월 29일 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후원지원사업과 회장으로 김윤정 (주)씨스타인웨이 그 대표를 선정했다.

### 국내입양 첫 부모교육 개최

새해 첫 국내입양 부모교육이 2월 13일 본부 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의해 국내입양 시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

#### 위기가정 아동 위해 5년째 1억 원 기부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는 1월 14일 '2013 꿈과 희망지원금' 1억 원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전국의 위기가정 아동 100명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 국가기록원과 기록물 기증협약식 체결

우리회와 국가기록원(원장:박경국)은 1월 17일 성남 나라기록관에서 기증협약식을 체결했다. 우리



회는 1950~2000년대의 주요 사업복지 역사 기록물 5,700여 점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했으며 이 자료들은 국가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게 된다. 기증 기록물은 『아동복지』 창간호(1973)를 비롯해 『동방의 자손들』 등 간행물과 사진, 롤필름 자료 등 당시 입양과 사회복지 현장을 생생히 담고 있다.

### (주)씨앤엠미디어원 감사패 전달



(주)씨앤엠미디어원을 대표해 문영권 국장님께 12월 20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씨앤엠미디어원은 2009년부터 입양 관련 특집방송을 매년 방영해 국내입양 활성화와 우리사회 공개입양문화 형성에 참여했다.

### 2012년 직원 워크숍



본부·지방사무소 직원들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워크숍이 12월 14일 계룡산에서 직원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0개 조로 나눠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며, 단합과 사회복지 실천 의지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44회 위탁도 장기근속 명예퇴임 시상식

제44회 홀트 위탁도 장기근속 및 명예퇴임 시상식이 12월 7일 우리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5년에서 25년간 홀트 아동들을 정성스레 보살펴주는



40명의 장기근속 어머니들과 명예퇴임 하시는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홀트국제아동복지회에서 방문한 입양가족, 후원자들이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함께 진행됐다.

### 국외장애입양인 및 가족 초청 모국연수

#### '2012 Happy Together' 열려

국외장애입양인 및 가족 초청 모국연수 '2012 Happy Together'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장애로 인해 모국 방문 기회가 적었던 국외입양인 9가족 14명이 참여했으며, 전통체험과 공연 관람, DMZ·천안·전주 방문, 입양 전 머물렀던 사회복지시설 견학, 위탁도 상봉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 ● 지방사무소 ●

### 강원사무소,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후원금 전달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3학년 임원 일동이 방과 후 직접 트리를 만들어 방송국 공모로 수상한 수삼금 전액을 후원했다. 후원금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기특한 후원이었다.

### 부천사무소,

#### 입양인과 함께하는 원어민 영어교실 시작



부천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1월 4일 우리회를 통해 입양돼 성장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열었다.

### 충청사무소, 입양부모교육 열려

충청사무소는 입양을 준비 중인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2월 20일 심리검사(대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은희 팀장)와 양모사례발표, 입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입양부모의 준비 및 논의를 주제로 입양부모교육을 개최했다.

## ● 홀트일산복지타운 ●

### 홀트라디오 최우수상 수상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12월 6일 개최된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발표회에서 '홀트라디오'가 최우수상을 수상, 상장과 메달 그리고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 보호작업장 개관식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홀트보호작업장이 1월 29일 준공식을 가졌다. 우리회가 20억 원, 고양시가 5억 원을 지원해 건설한 보호작업장은 연면적 3,000㎡ 규모의 3층 건물로 1층은 콩나물 공장과 카페, 자원봉사자실, 2층은 작업활동실, 상담/평가실, 훈련생들의 휴게공간, 3층은 사무실, 재봉실, 식당으로 구성됐다.

## ● 홀트학교 ●

### 플로어키티팀 스페셜올림픽 은메달 수상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홀트학교 플로어하키티팀이 첫 국가대표로 출전, 은메달을 수상했다.

### 홀트드림센터 자원봉사 펼쳐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임경애 교장을 비롯해 8명의 교사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방과 후 교문지원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 ● 종합사회복지관 ●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 S-OIL과 함께하는 '사랑앓김장나눔행사'



12월 22일 S-OIL 신입사원 60여 명이 1,200kg 분량의 김치를 담가 저소득장애인 가정 120세대에 전달했다.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학프로그램

1월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장애아동 및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요리, 미술, 체육, 음악, 원예, 외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중 놀이터를 진행했다.

###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 독거노인 원예활동 지원사업 업무협약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1월 29일 한화생명 대구지역들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돕고자 2013년 한 해

동안 '꽃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진행하게 되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이동발달지원센터 2012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31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문제해동 조기개입 서비스'로 2012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에서 전국 266개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송NH 주민축제 '어울림 한마당'**



반송NH 주민축제 '어울림한마당'은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월 6일 '아름다운 향기가 머무는 반송 주공아파트(이하 '아향반주') 주민조직이 회의를 통해 기획·진행했으며, 무료 떡국 나눔 행사와 주민노래자랑을 실시해 지역주민 390명이 참여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2012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실시**



동절기를 맞아 재가 대상자와 결식아동들을 위해 2012 김장나누기 사업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경륜정사업본부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실시되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북 콘서트 'Book 소리가 들리는 밤'**

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북콘서트가 1월 18일 지역주민 약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에서 운



영하는 늘 푸른 도서관의 첫 북 콘서트로 독서감상문, 독서감상화, 운문 부문의 작품 시상식과 발표회,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발전 모색을 위한 F.G.I.**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가족전문가 4명, 지역사회전문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한 F.G.I.(집단지성인터뷰)를 실시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미혼모자시설**

**고운뜰, 사랑의 기금 전달식**

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는 2월 22일 고운뜰을 방문해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가 개최한 '행복나눔, 재능나눔, 사랑의 일일찾집' 수익금으로 총 1,011만 원이 기부됐다.

**아침뜰, MC해피투게더와 함께하는 즐거운 파티**



2013년 2월 17일 MC해피투게더 소속 MC들이 방문해 아침뜰 식구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출산과 육아로 지친 심신을 일으키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사랑뜰, 홀트카페 열어**

사랑뜰 미혼모자와 위탁아동 동기 기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홀트카페'를 열었다. 홀트카페는 원두,



우유, 시럽, 쿠키 등의 1년간 후원을 약속한 '마타니아' 후원을 비롯해 LCD TV를 후원해주신 후원자, 예쁜 블라인드를 설치해주신 후원자 등 여러 도움의 손길로 마련된 소중한 나눔 공간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경영아카데미**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경영아카데미 '다름을 이해하는 행복한 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2월 18일과 28일 양일간 에니어그램 검사와 부모로서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의 날**



'수요일만함은 함께 먹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2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으로 가족요리 시간을 마련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플러스와 함께하는 '건강가정 캠페인 플러스'**



홈플러스 하남점과 연계해 12월 5일 지역주민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하남시민 100명이 참가해 가족사랑 실천 약속하기 가족사진 나눔, 센터 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남시민의 날 '가족사랑 캠페인'**

10월 7일 하남시민의 날을 맞아 하남종합운동장에서 '가족 사랑을 표현하세요!'라는 주제로 가족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회연합회와 다문화가족 1:1 멘토-멘티 후원 결연식**

마포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마포구교회연합회의 후원으로 마포구 거주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20가족과 후원 결연식을 갖고 후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멘토로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황금초등학교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황금초등학교와 연계해 총 9회기 동안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다함께 알아가는 다문화 이야기'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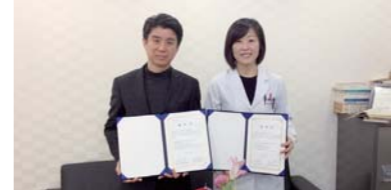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춘천다문화가정 자녀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월 16일 우리회와 (주)뉴스커뮤니케이션 후원으로 '2013 춘천다문화가정 자녀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 춘천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60명에게 총 6,0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4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1억 2,516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홀트심리상담센터, 미주병원과 협약식**

대구광역시 미주병원과 홀트심리상담센터가 1월 16일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영아원**

**희망나무 사랑예술제**



12월 15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도내 16개 시설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재능의 발휘 기회 마련을 위한 '제7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예술제에는 전주영아원 아동 9명이 대표로 출전했으며, '장구로 하는 국악공연과 댄스' '안녕자두야' 등을 선보여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 많은 찬사를 받았다.

**어린이집**

**졸업식 열려**



제22회 마포어린이집과 중동어린이집 졸업식이 2월 19일과 2월 22일 개최됐다. 총 27명의 원아들이 졸업했으며, 홀트어린이집 또한 2월 22일 19회 졸업식이 열려 19명의 원아가 정든 어린이집을 졸업했다.

**전국후원회**

**서울후원회와 성남후원회, 신년하례식 가져**

서울후원회, 성남후원회 주최로 1월 8일 본부 강당에서 말리 홀트 이사장, 후원회 김경희 회장, 본

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강원후원회, 1월 정기총회 열어**



홀트강원후원회(회장:신명숙)는 1월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결산 및 2013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아동과 다문화를 위한 후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경북후원회, 일일찾집**

경북후원회(회장:김수조)는 12월 4일 포항시 하성재 라이브클럽에서 위탁아동들을 위한 일일 찾집을 열고 모든 수익금을 기부했다. 한편 이날 김진선·차민정 회원이 포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달구벌후원회, 미혼모를 위한 사랑의 후원**

달구벌후원회(회장:김문연)는 2월 8일 설을 맞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사랑뜰에서 지내는 미혼모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후원, 가족처럼 명절을 함께 맞이했다.

**울산후원회 위탁아동 백일잔치 열어**



울산후원회(회장:홍승순)는 위탁보호 중 100일을 맞이한 두 명의 아동을 위해 '아기천사의 100일' 행사를 열고 백일상과 백일선물을 제공, 가정 못지않은 환경 속에서 위탁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회 후원자님과 함께 손잡고 올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후원자님께서 주시는 나눔은 바로 '사랑'입니다. 작은 나눔이라 여기며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큰 사랑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함께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2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2012 1/1 ~ 12/31)

<b>세입</b> 계 9,878,514,437원	<b>전기이월</b> 1,220,499,737원	<b>후원금 수입</b> 8,658,014,700원
	<b>세출</b> 계 8,388,491,001원 (이월금) 차기이월 : 1,490,023,436원	<b>일반후원(양육후원)</b> 3,722,132,573원 아동양육비, 식료품비, 피복비, 의료비, 사후지원사업비
	<b>해외 후원</b> 213,244,884원 캄보디아아동결연, 캄보디아지역사회사업비, 캄보디아급식지원비	<b>미혼모 후원</b> 91,991,530원 생계지원비, 미혼모재가복지, 재활사업비, 의료비, 미혼모상담사업
	<b>운영비/기타 지출</b> 1,652,639,000원 운영비/기타 지출	<b>저소득 장학 후원</b> 211,466,755원 장학금, 청소년사업비, 공과회망캠프 외 다문화사업비, 국내입양가정지원
		<b>지역사회복지 후원</b> 1,012,367,777원 아동복지사업비, 노인복지사업비, 급식사업비, 지역복지사업비, 재가복지사업비



## 지금 마카라에게 필요한 건 분유입니다

2013년 1월 7일 마카라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2개월 남짓한 마카라를 볼 때마다 엄마는 한숨이 나옵니다. 일곱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갓 태어난 마카라를 위해 젖을 짜내보지만 먹는 것이 없다 보니 잘 나오지 않습니다. 첫 남편이 죽고 코코넛과 쓰레기에서 건진 물건을 팔며 근근이 이어온 생활도 지금의 이주정착촌으로 온 뒤로는 못하게 됐습니다. 빈 젖을 물고 있는 마카라에게도, 여섯 아이들에게도 엄마는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마카라 분유지원에 참여해주세요.

“ 캄보디아 빈곤가정 분유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

캄보디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영유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절반은 아사, 절반은 면역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영유아 결식과 영양결핍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 혹은 장애에 노출되는 위험을 낮추고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정선정 ▶ 수유 및 위생 교육 ▶ 분유 지급 ▶ 분기별 아동 발달 확인

결연후원·해외사업 후원가입 02-331-7075 / www.holt.or.kr

봉사+여행

# “아름다운 여행”

Cambodia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 그러나 UN이 정한 최빈국 중 하나인 곳. 홀트여행사와 다모아항공(주)이 기획한 ‘아름다운 여행’은 캄보디아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고, 작은 도움의 손길까지 내밀 수 있는 여행상품입니다.

**캄보디아(프놈펜·시엠립) 5/7일**

- 캄보디아(프놈펜) 홀트드림센터 봉사활동 1일(자원봉사 확인서 발급)
- 여행 상품 수익금 홀트아동복지회 기부
-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와트, 앙코르톰 남문, 바이온사원, 바프온사온, 코끼리 테라스, 톤레삽 호수공원 외

※문의 | 홀트여행사 02-331-7083



##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더해줄 따뜻한 나눔을 기다립니다

○ 후원 사업

**국내사업 후원** : 요보호아동 후원사업, 한부모가족 후원사업, 저소득가정아동 후원사업, 장학사업, 장애인복지 후원사업  
**해외사업 후원** : 캄보디아 도시 계획으로 밀려난 이주민 정착촌, 모든 것이 부족한 이곳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보건, 의료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  
**결연 후원** : 해외빈곤아동 한 어린이의 교육과 보건지원 사업

○ 후원 신청

**정기 후원** :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CMS), 신용카드·핸드폰 기부  
**일시 후원** : 사랑나눔상자(저금통), 특별한 기부(생일, 첫돌, 기념일 등 별의별 기부)  
**기업 후원** : 사이(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이웃), 물품 후원, 캠페인 후원

○ 후원 참여

www.holt.or.kr / 02-331-7073~4 / ARS 060-700-1006 / sponsor@holt.or.kr



입양가족 포토에세이 공모전

# “아름다운 행복”



- **공모주제** | “소중한 내 아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
- **소재**
  - 입양과 더불어 탄생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행복했던 순간들, 기쁨과 아픔이 공존한 입양가족들의 아름다운 추억, 국내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높이기 위한 작품
  - 가슴으로 낳은 소중한 내 아이, 사랑이 묻어있는 가족의 모든 추억, 우리 가족의 행복한 순간
- **응모기간** | 2013년 3월 11일(월) ~ 2013년 4월 10일(수)
- **참가자격** | 입양가족 누구나
- **공모분야 및 형식**
  - 사진 : jpg 형식(2200\*1500pixel 이상 권장)
  - 응모자 또는 가족이 직접 촬영·편집한 작품으로 각 1인 2점 응모 가능

● 시상내역

시상내역	대상	우수상	입상
점수	1점	4점	5점
상금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

● 접수방법

- 제출물 : 참가신청서(www.holt.or.kr)와 응모작
- e-mail 접수 : 사진 photo@holt.or.kr
- **발표** | 2013년 5월 8일(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문의** | 홍보팀 02-331-7118 / pr@holt.or.kr
- **주최** | 홀트아동복지회
- **후원** | 보건복지부

※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holt.or.kr 참고해주세요!

innisfree

new

발효콩,  
피부 속  
콜라겐을  
만들다

이니스프리 [제주 발효콩 탄력 세럼]

